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39호
2025.02.27.(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중국·원자재** 중국, 희토류 관리규제 초안 통해 2강 체제 본격화
- 콩고·원자재** 콩고,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코발트 수출 4개월간 중단
- 대만·소재**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산업피해 있어”
- 미국·반도체** 미국, 반도체 관세부과 및 보조금 재검토 등 보호무역 심화

주간 이슈 포커스

- 인니·광물** 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통해 광물 우선 채굴권 제공 대상 확대

원자재 뉴스 PLUS

- 에너지**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서 ‘원전 의존 저감’ 문구 삭제

II. 월간 공급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동향 및 시사점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기후변화가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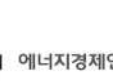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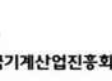
IV. 공급망 소식통



2025년 경상남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안내(~2.28.)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중국, 원자재 중국, 희토류 관리규제 초안 통해 2강 체제 본격화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통제 관리방법'과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방법' 초안을 공개하며, 3월 2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발표(2.19.)
-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총량을 설정해 이를 대형 국영기업 및 그 산하 기업에 할당할 계획이며, 대상 기업은 추적관리 설비 마련 등의 조건 충족 필요
- 중국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등 업스트림 분야는 국영기업인 '중국희토'와 '북방희토'가 장악하고 있으며, 동 초안으로 인해 자원 및 산업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져 2강 체제가 공고해질 전망
- * 업스트림(Upstream)은 원자재 탐사, 발굴, 시추, 생산 등의 단계를 뜻하며, 주로 석유 관련 산업에서 사용됨
- 동 초안은 앞서 중국이 마련한 「희토류 관리 조례('24.10.1.부)」를 이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해당 조례에는 정부가 희토류 제련·분리, 수출입, 유통, 재활용 등 전체 공급망을 통제한다고 명시

핵심 키워드

희토류

규제

출처: 중국 공업정보화부(2.19.), KOTRA 베이징무역관 해외시장뉴스(2.20.) 및 경제통상리포트('24.7.9.)

콩고, 원자재 콩고,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코발트 수출 4개월간 중단

- 2.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전략광물자원 시장규제 및 통제기관(ARECOMS)이 공급과잉을 이유로 코발트 수출을 중단했으며(2.22.부) 이를 향후 4개월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
- 코발트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콩고민주공화국이 세계 물량의 약 70%를 생산
- * 콩고에서 코발트 생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중국의 CMOC로, '24년 콩고 내 구리(코발트 원료) 생산량을 5.6만 → 11만 톤으로 확대한 바 있음
- 앞서 코발트 가격은 82천 USD('22.4.)에서 22천 USD('25.2.)로 3년만에 27% 수준으로 하락(LME)
- 동 조치는 코발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차전지, 전기차, 휴대전화 등 코발트가 사용되는 관련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핵심 키워드

코발트

이차전지

출처: Bloomberg(2.25.)

대만, 소재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산업피해 있어”

 대만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는 한국 및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면 산업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2.18.)

* 일몰재심(Sunset Review) : 반덤핑제도가 보호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덤핑방지 또는 상계관세 부과명령이 내려진 후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재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한 협정

➤ 대만은 냉연된 스테인리스강의 SUS 300 시리즈 등의 한국 및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13.8.15.부), 이번 일몰재심은 앞선 1차 심사('19년)에 이은 2차 심사

* 냉연강판 : 판재 모양의 철강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린 강판을 열연강판이라고 하며, 이를 상온에서 기계로 더욱 얇게 누른 제품

* '19년 1차 일몰재심의 결과, 대만은 한국산 제품에 37.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동 일몰재심에서는 자국 산업 피해 여부, 판매경로가 구축된 대만시장으로의 재수출 가능성 등을 평가

 대만 관세율심의회의는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

핵심 키워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출처: 대만 경제부(2.18.)

미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 관세부과 및 보조금 재검토 등 보호무역 심화

 미국이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련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

➤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검토 중(2.13.)

*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약 2,8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공장설립 보조금, 연구개발비, 반도체 공급망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

➤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보조금으로 47.5억 달러(약 6.8조 원),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 메모리용 패키징 공장 건설에 4.6억 달러(약 0.7조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태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중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

 반도체의 경우 밸류체인(VC)이 복잡하여 관세가 제조공정 일부에 대해 부과되더라도 전·후 공정에 관여하는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미국의 행보가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핵심 키워드

CHIPS Act

반도체 보조금

출처: 로이터(2.14.) 및 폴리티코(2.18.)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인니, 광물 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통해 광물 우선 채굴권 제공 대상 확대

- 2.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광물 및 석탄 채굴에 관한 법률」 제4차 개정안을 승인하여 기업별 광물 채굴 할당, 토지 사용 규정, 계약연장 방법 등을 변경
- 기존에는 특정 광산에 대한 우선 채굴 권한이 국유기업에게만 부여되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종교단체, 중소기업(SME),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에게도 우선 채굴권 부여가 가능해짐
- 개정된 법은 광산 등 광물 생산업체들이 수출보다 내수 공급을 우선시하도록 주문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현황 및 광업법 개정 관련 현지 의견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현황

-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천연자원 및 광물 부국으로, 특히 니켈·보크사이트·주석·코발트·동 등 핵심 광물을 보유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세계 1위 수준이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2%에 해당
- 니켈은 '20년 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으며 코발트 역시 수출 이력 없음
- 인도네시아는 '23년 핵심 광물 47종을 지정했으며, 알루미늄·안티모니·철·비스무트·게르마늄·흑연·코발트·리튬·니켈·몰리브데넘·구리·주석·티타늄·텅스텐 등 포함

〈주요 광물 생산량 및 생산규모 순위〉

광물종류	생산량(M.T.)	세계순위
니켈	98,187,963	1위
보크사이트	28,808,674	5위
구리정광	3,321,239	-
코발트	28,000	2위

*자료: Statista

〈인니 주요 광물 수출규모〉 (단위:만 톤)

광물(HS 코드)	2019	2020	2021	2022
니켈(2604.00)	3,238.0	-	-	-
코발트(2605.00)	-	-	-	-
알루미늄(2606.00)	1,550.0	1,942.2	1,991.4	1,784.5
망간(2602.00)	0.01	0.3	0.2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광산법 개정에 대한 현지 의견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그간 광산 개발의 특권은 자카르타에 기반한 대기업이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광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종교단체가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툴 울라마(NU)’는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또 다른 이슬람 단체 ‘무함마디야’ 역시 광산 개발권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대 표명
- 한편, 일각에서는 종교단체에 이권을 부여하여 선거 등에서 득표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평가
 - 인도네시아 공익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사무총장은 “광산을 개발하고 관리하려면 자본, 기술, 위험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인도네시아 부패 감사관(ICW)은 해당 개정안이 부패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천연자원 관리 부문의 부패로 인해 국가가 약 24.8조 루피아(약 2.3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강조

핵심 키워드

광산법

우선 접근권

출처: 로이터(2.18.), 인도네시아 투자부, 미국 지질조사국 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서 '원전 의존 저감' 문구 삭제

- 2.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개정함
-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명시해온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분명히 함
- 또한 폐로된 원전 부지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기존 원전 부지에서 차세대형 원자로 건설을 추진할 방침도 명시함

출처: 교도통신(2.18.), BBC(2.18) 등 언론보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3주)

비철금속 | 美-中 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따른 동 가격↑, 공급량 증가에 따른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년	전년비(%)	2.2주	2.3주	전주비(%)
동	8,478	9,147	7.9	9,397	9,406	0.1
니켈	21,474	16,812	△21.7	15,247	15,229	△0.1
아연	2,647	2,779	5.0	2,804	2,846	1.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中 무역갈등 완화 기대 및 러-우 종전 협상 추진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수요가 개선되며 달러가치 하락으로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 단,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우려 및 재고량 증가세로 상기 상승압력 부분 상쇄된 것으로 분석
- (니켈) 니켈시장 공급과잉과 中 전기차 판매실적 부진 및 재고량 증가세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단, 인니 니켈원광 생산쿼터 감축결정 및 필리핀 원광 금수조치 입법 추진에 따라 공급과잉 우려 희석되며 상기 하방압력 부분 상쇄

철강 | 中 건설업 부진 및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따른 연료탄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년	전년비(%)	2.2주	2.3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6.43	△21.3	106.85	105.11	△1.6
원료탄	295.71	240.90	△18.5	189.45	189.30	△0.1
철광석	119.32	109.89	△7.9	107.04	107.44	0.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유연탄)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中 건설업 경기부진 지속 및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따른 가격 하락
- (철광석) 美 철강 추가관세 부과(25%)에도 불구하고, 中 춘절연휴 이후 제강사 조업재개 및 호주 철광석 공급차질 우려로 가격 상승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3주)

희소금속 | 수요 대비 공급 증가로 인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월	전년비(%)	2.2주	2.3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20	△6.8	1,140	1,140	-
탄산리튬	12,526	10,341	△17.4	10,404	10,396	△0.1
수산화리튬	11,398	9,620	△15.6	9,651	9,708	0.6
코발트 (U\$/lb)	16.25	14.18	△12.8	14.00	14.0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26,088	△12.2	236,300	235,500	△0.3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56,424	1.3	60,730	61,590	1.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수요 대비 주요국·기업의 공급 증가로 전주 대비 가격 소폭 하락

- ▶ 배터리 생산업체 CATL社의 장시성 이춘시 소재 지안샤위 리튬 광산이 '24.9월 생산 중단되고 '25.2월 초 생산 재개한 이후 가격 지속 하락 중

에너지 | 러시아 송유관 인프라 공격 및 美 한파에 의한 석유 생산 감소로 인한 원유 가격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2.2주	2.3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9.42	△0.16	78.21	78.44	0.24
브렌트유	79.86	77.11	△2.75	75.56	75.89	0.33
WTI	75.76	73.68	△2.08	71.81	72.22	0.41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러시아 남부를 지나는 송유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및 美 한파에 의한 석유 생산량 감소 소식 등으로 단기 석유공급 감소, 원유 가격 상승

- ▶ 2.1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지역의 송유관 펌프 스테이션이 드론 공격을 받아 공급량 감소 우려가 부각
- ▶ 2.18일(현지시간) 미국 North Dakota 주 당국은 한파 영향으로 주리 석유 생산량이 15만 b/d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함

월간 공급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동향 및 시사점

작성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김단비 전문관

1. 개요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수의 대통령 행정 조치를 통해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개시
 - ③ (대미 무역 흑자국 대상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및 검토 지시
 - ▶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주요 무역 적자국인 중국에 관세부과
 - ③ (비관세 장벽을 포괄한 상호관세 부과) 미 행정부는 관세 이외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를 포괄하여 조사 진행 예정
 - ▶ 비상호적 무역 조치는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 ▲부당한 정책 또는 관행(보조금 정책 등),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 ③ (품목 관세 부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대상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의약품 등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예고
 - ▶ (철강 및 알루미늄) 제232조를 근거로 2018년에 부과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율 일괄 적용 및 기존 별도 예외·면제 조치 철회
 - ▶ (상호 관세 부과) 상호 관세부과 조사 관련 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대응하고자 하는 비상호 무역 관행의 예시로 자동차, 농산물 등 특정 품목 언급

2.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부과 조치 동향

□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 ③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과 대중국 견제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전방위적 조사 및 검토 지시
 - ▶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련) ▲상품 무역 적자 원인 조사 및 관세 대안 등 제시,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정책·규정검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 설립 타당성 조사, ▲교역국 환율 정책 평가, ▲역외 세금 관련 검토, ▲USMCA 의견 조회 착수 등

- ▶ (대중 경제·무역 관계 관련) ▲미·중 경제무역협정 관련 중국의 이행 여부 검토 및 대책 마련, ▲301조 4개년 검토 보고서 평가 후 추가 관세 검토,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부여 관련 법안 평가 및 수정 의견 제시, ▲美 지식재산권 현황 평가 등
- ▶ 각 부처에 4.1일까지 무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역 상대국 대상 관세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질 조치 여부 결정 전망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부과 행정명령

-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하여, 2.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 ▶ ▲캐나다와 멕시코는 펜타닐, 불법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허용,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지위 부여는 미국의 안보 이익 훼손 등을 이유로 관세부과 필요성 주장
- ▶ 멕시코와 캐나다의 시행은 1개월 유예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는 즉시 시행(2.4.~)

☐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 강화

- ☞ 2.10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는 25%의 추가 관세부과
- ▶ 2018년에 부과된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율 일괄 적용 및 기존 별도 예외·면제 조치 철회(3.12일 적용 예정)
- ▶ 금번 조치로 기존 예외·면제 등을 합의했던 동맹·협력국을 피해가 증가 전망. 특히 한국은 수출쿼터제를 통해 해당 물량(263만t)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예외 조치 제외 가능
- ▶ 해당 관세 조치는 타 관세 위에 부과되는 개념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해당 관세율이 50%로 증가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보편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간 유예

☐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Reciprocal Trade and Tariffs Memorandum)

- ☞ 트럼프 대통령은 2.13일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서명을 통해 상무부와 USTR에게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 조사 명령
- ▶ (조사 범위) ▲관세, ▲검역 조치·기술 무역 장벽(TBT)·수출 보조금·지식재산권·디지털 무역장벽·경쟁 정책 등 비관세 장벽,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 ▲부당한 정책 또는 관행(보조금 정책 등),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등 포함

- ☞ 백악관은 해당 각서 발표일 Fact Sheet*(2.13)를 통해 ▲관세, ▲각국 세법 등에서 비상호적 조치 사례 제시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 ▶ (주요 내용) 비상호적인 무역장벽의 확산으로 미국이 상품 1조 달러, 농산품 약 400억 달러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
- ▶ (농산품) 2019년 132개국 60만 개가 넘는 제품군에 걸쳐 미국 수출업체가 높은 확률로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브라질산 에탄올, 인도산 농산물, 유럽산 자동차 등을 언급

- ▶ **(디지털세)** 교역국이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수를 획득한다고 지적함. 구체적으로 캐나다와 프랑스는 디지털세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징수하고 있으며, 비상호적인 세금으로 미국 기업이 연간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
- 🔍 **(전망)** 각서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미언급
- ▶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1.20.)에 따른 보고서 제출 기한(4.1.) 고려 시, 이르면 4.2일부터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조치 가능 전망

〈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 동향

발표 일자	조치명	주요 내용
1월 20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 (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 각 부처에 4월 1일까지 무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관세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예정
2월 4일	IEEPA 관세 부과 행정명령	· 2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부과
2월 10일	제232조 관세 부과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쿼터 등 예외 조치 종료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대통령 각서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Memorandum)	· 각국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에 대해 조사(4.1.) 후, 이르면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4.2일부터 상호 관세부과 가능 ·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바(비관세 장벽, 세금, 기업 규제 정책, 환율 등),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제품군에 관세부과 가능

3. 시사점

📌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다수 국가의 광범위한 제품에 관세 부과 가능

- 🔍 **(개발도상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기존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던 개발도상국에도 예외 조치 없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 ▶ 이들 국가에서 미국에 수출하던 주요 품목은 미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상당한바,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클 전망
- 🔍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등이 있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관세부과 가능

- ▶ 다수의 유럽 국가(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보유 중이며, 캐나다, 프랑스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 보유
- 🔍 **(한국)**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는 상황이나,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존재
- ▶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역흑자, ▲플랫폼법,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의약품 가격책정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 ▶ USTR은 2024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의 공공조달,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GMO)에 대한 규제 등 언급

📌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제조 산업의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 증가, ▲주요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 확대

- 🔍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등 국내 주요 제조 산업의 대미 수출 비용 증가 가능성
 - ▶ (자동차)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시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원자재비, 인건비 등 투자 및 생산 비용 상승 가능
 - ▶ (철강) 25%의 추가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쿼터 종료로 물량 제한이 해소됨에 따른 기회요인*도 상존
 - * 환율 변화와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 등이 일부 가격 경쟁력 상쇄 가능성
 - ▶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증가에 따른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며,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인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비용 확대된
-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 지속
 - ▶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 확대는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 실제로 중국을 대상으로 10%의 관세 발효(2.4.)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중국산 희귀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맞대응
 - ▶ 중국은 미국산 원유·제초기·트랙터·대형자동차 등에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석탄·갈탄·LNG 등에 15% 관세 부과
 - ▶ 이외,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텅스텐·몰리브덴·인듐·비스무트·텔루륨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 대상 수출통제 발표(2.4.)

〈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공급망 영향 가능성

	공급망 영향 요인	내용
단기	· (수출가격) 주요 수출 품목 가격 경쟁력 약화	·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미 수출 품목의 수출 비용 증가
	· (원자재 수급) 통상 마찰 확대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정	·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맞대응 조치 및 수출 제한 확대
장기	· (생산시설) 대미 투자 필요성 확대 및 기존 생산시설의 생산 비용 확대	· 공급망 다변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및 미국 내 투자 확대 필요성 증가

참고 문헌

- White House(25.1.20), America First Trade Polic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 White House(25.2.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 White House(25.2.1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restores-section-232-tariffs/>
- White House(25.2.1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nnounces-fair-and-reciprocal-plan-on-trade/>
- White House(25.2.13),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2/reciprocal-trade-and-tariffs/>
- 광장(2025.2.20.),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장벽 쌓기에 돌입, 법률신문

공급망 더 알아보기

기후변화가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원문 Climate Resilience for Energy Security(IEA) 등

기후변화는 광물의 추출·가공·운송 등 가치사슬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호에서는 기후변화가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 생산에 끼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강수량 변화 예측

연간 글로벌 평균 강수량은 기후변화로 평균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

- ▶ IPCC 6차 보고서 기준, 온실기체 배출량이 가장 작은 상황에서(SSP1-1.9)* 2100년까지 연간 글로벌 평균 강수량은 1850~1900년 대비 약 3% 증가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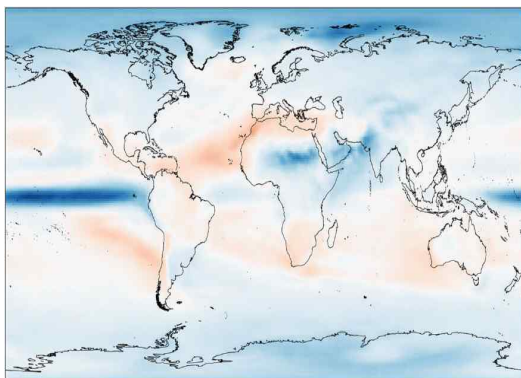
- ▶ 온실기체 배출량이 가장 큰 경우(SSP5-8.5)* 2100년까지 연간 글로벌 평균 강수량은 1850~1900년 대비 약 8% 증가

* 2021년 대비 2075년 온실기체 배출량 3배로 증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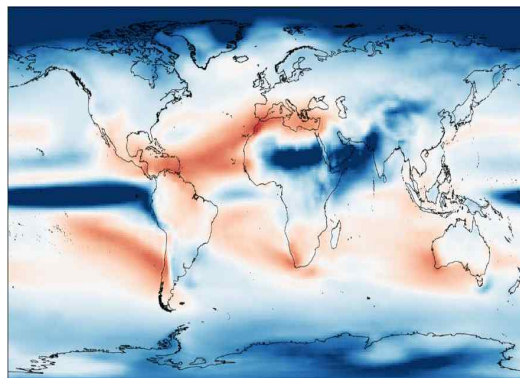
연간 글로벌 평균 강수량은 증가하나 지역별 편차가 큼

- ▶ 적도 부근 태평양, 인도·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지중해·중부 및 남부 아메리카·남부 아프리카·호주 지역의 강수량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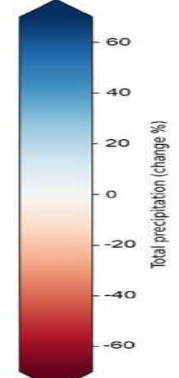
온실기체 배출량이 작은 경우(SSP1-2.6) 강수량 변화



온실기체 배출량이 큰 경우(SSP5-8.5) 강수량 변화



(2080~2100년)



극한 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홍수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

- ▶ 오늘날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보다 극한 호우의 빈도가 30%, 강도가 7% 증가
- ▶ 중부·북부 유럽, 북아메리카의 중부·동북부 지역, 러시아 북극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전역, 아프리카 서남부·동남부 지역에서 폭우의 가능성이 증가

🔍 지역별 강수량의 변화로 가뭄이 빈번해짐

- ▶ 전 세계적으로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지난 40년간 두 배로 증가함
- ▶ 북미, 남아프리카, 호주 남부에서 수문학적 가뭄의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강수량이 부족하여 하천 유출량이 감소하는 가뭄
- ▶ 서부·중부 유럽, 아프리카, 미국 서부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농업적·생태적 가뭄*의 빈도가 증가할 전망
 - * (농업) 토양 수분이 부족해져 농업에 영향을 주는 가뭄 / (생태) 장기간 넓은 지역에 걸쳐 수자원이 부족해져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가뭄
- ▶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증가할 때마다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75% 증가

📊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의 특징

🔍 다양한 광물이 청정에너지 산업에 필요

- ▶ 청정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대표적인 광물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배터리), 희토류(전기차, 풍력), 구리·실리콘·은(태양광), 구리·알루미늄(전력 인프라) 등이 있음

🔍 청정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더 많은 광물을 필요로 함

- ▶ 전기차는 내부 배선·배터리 팩·모터 등 차량 전반에 걸쳐 구리가 사용됨.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는 약 4배의 구리가 더 필요함(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 * 1대당 구리 수요량 : 내연차(21.8kg), 전기차(83kg)
- ▶ 해상 풍력발전소는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보다 필요한 광물량이 13배임(IEA)
 - * 발전소 1개당 필요 광물량 : 해상풍력(15,403kg), 천연가스 화력(1,164.1kg)

🔍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은 ▲기술 발전, ▲기후 정책, ▲지정학적 상황 등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어 예측이 어려움(IEA)

- ▶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경우, 광물 수요는 2021년 대비 2040년에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물 수요가 2040년까지 6배까지 증가함
- ▶ 기술의 발전과 기후 정책 방향에 따라 개별 광종의 예측 수요는 변동폭이 더 크다.
 - * 2021년 대비 2040년 광물수요 : 리튬(13~51배), 코발트(6~30배), 희토류(3~7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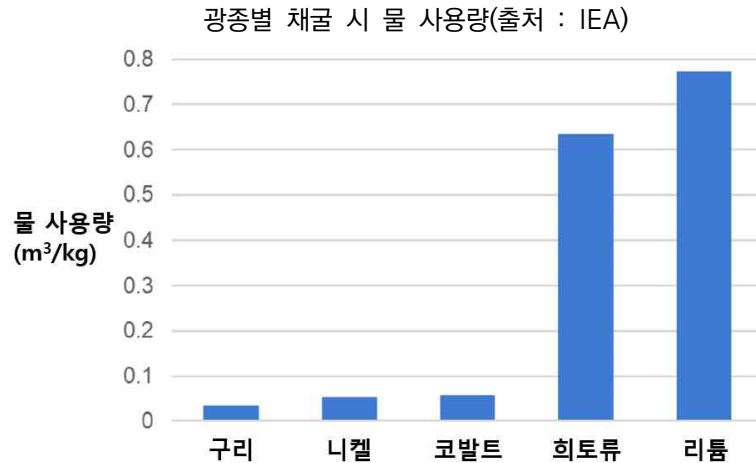
🔍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은 화석연료에 비해 생산이 특정국에 더 집중되어 있음

- ▶ 2023년 석유 생산량 상위 3개국의 점유율 합계는 40%인 반면(Enerdata), 리튬·코발트·흑연·희토류는 생산량 상위 3개국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임(USGS)

📊 기후변화가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가뭄·홍수는 핵심광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침

- ①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감소하여 광산 지역에 물 부족이 발생하면 광물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음
 - ▶ 물은 ▲광물 분리, ▲기계 냉각, ▲먼지 제어 등 광물 채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



- ▶ 전력 생산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경우 물 부족이 발생하면 전력 부족으로 광물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음
- ▶ (사례) 2024년 초,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엘니뇨 현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전력 생산의 85%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잠비아가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음.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생산국이며, 콩고 구리 광산도 잠비아의 전력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구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Bloomberg)

② 기후변화로 광산 지역에 강우량이 증가하면 채굴 시설이 손상되거나 유해 폐기물이 유출될 수 있고 폭우 발생 시 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광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침

- ▶ (사례) 브라질 남동부 지방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 쏟아진 폭우로 철광석 광산 조업이 일시적 중단('22년 1월)

주요 광물별 영향

- ⑤ (종합) 세계자연연구소(WRI)에 따르면, 전 세계 육상기반 중요 광물 매장 지역의 최소 16%가 이미 높은 수준의 물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음
- ⑤ (리튬) 리튬의 주요 생산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감소하고 건조해짐
 - ▶ 2023년 글로벌 생산량은 18만 톤이었으며 주요 생산국은 호주(48%), 칠레(24%), 중국(18%) 등이 있음(USGS)
 - ▶ 리튬 생산의 50% 이상이 칠레, 호주 등 물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 (사례) 中 전기차 업체 BYD는 칠레 정부와 리튬 광산 개발을 계약했으나, 원주민이 리튬 채굴로 인한 물 부족을 우려해 시위에 나서면서 칠레 대법원이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결('22년 6월)
 - ▶ 온실기체 배출량이 높은 경우(SSP5-8.5) 20% 이상의 광산이 2080년~2100년대에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건조 기후에 직면하며, 46%의 광산에서 연속된 건조일수가 10일 이상 증가함
 - ▶ 온실기체 배출량이 낮은 경우(SSP1-2.6) 90% 이상의 광산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더 건조해짐

🔍 (니켈) 니켈의 주요 생산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극한 호우가 빈번해짐

- ▶ 2023년 글로벌 생산량은 360만 톤이며 주요 생산국은 인도네시아(50%), 필리핀(11%), 뉴칼레도니아(6%) 등이 있음(USGS)
- ▶ 인도네시아는 니켈 생산 및 가공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집중 호우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 (사례) 폭우로 인해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지역인 북부 말루쿠에 돌발 홍수 발생('23년 9월)
- ▶ 50% 이상의 생산지는 2080~2100년대까지 기후변화로 일일 최대 강수량이 1850~1900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
- ▶ 온실기체 배출량이 높은 경우 40% 이상, 낮은 경우 10% 이상의 생산지가 2080~2100년대까지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더 습한 기후로 변화함

🔍 (코발트) 코발트의 주요 생산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극한 호우의 빈도가 증가함

- ▶ 2023년 글로벌 생산량은 23만 톤이었으며 주요 생산국은 콩고(74%), 인도네시아(7%), 러시아(4%) 등이 있음(USGS)
- ▶ 온실기체 배출량이 높은 경우 80%, 낮은 경우 10% 이상의 생산지가 2080~2100년대까지 기후변화로 일일 최대 강수량이 1850~1900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
- ▶ 온실기체 배출량이 높은 경우 생산지의 약 15%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더 습한 기후로 변화함
- ▶ (사례) 남아공 더반 항구에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여 콩고의 코발트 수출이 몇 주간 중단되었음('22년 4월)

🔍 (구리) 구리의 주요 생산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더 습해지거나 건조해짐

- ▶ 2023년 글로벌 생산량은 2,200만 톤이었으며 주요 생산국은 칠레(23%), 페루(12%), 콩고(11%), 중국(8%) 등이 있음(USGS)
- ▶ 온실기체 배출량이 높은 경우 생산지역의 9%가 더 건조한 기후로, 26%가 더 습한 기후로 변화함
- ▶ 온실기체 배출량이 낮은 경우 대부분의 생산지역은 기후변화가 안정함

① 칠레, 호주 등 건조해지는 지역에서는 구리 생산을 위한 수자원 확보 압력이 높아짐

- ▶ 전 세계 생산량 1위 국가 칠레는 빈번한 가뭄으로 구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사례) 13년만의 가뭄으로 칠레의 주요 광산은 구리 생산량이 15~25% 감소('22년 상반기)

② 페루, 중국 등 습해지는 지역에서는 수자원 확보가 수월해지나 홍수의 위험이 증가함

- ▶ (사례)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홍수로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21년 7월)

공급망 소식통

◆ 2025년 경상남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안내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5년 해외전시회(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
- ▶ 사업 기간: 2025.3월 ~ 12월
- ▶ 지원 규모: 20개사 내외
- ▶ 지원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경상남도 내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 중소기업
 -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공동관 또는 국가관 미참가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회 등 타 기관의 지원 없이 전액 자비 참가 기업

▣ 지원 내용

- ▶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료(장치비 포함)
- ▶ 지원 대상 전시회: 2025.3월 ~ 12월 개최 해외전시회
- ▶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이내(연 1회)
- ▶ 지급 방법: 사후 정산 지급(전시회 참가 후 구비서류 제출 필수)
- ▶ 선정 기준: 경상남도 수출진흥사업 참가기업 선정기준 적용

▣ 유의사항

-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 전시회(보조금 지원대상) 변경 절대 불가
- ▶ 동일 전시회 참가에 따른 타 기관 보조금 중복 수령 시 보조금 반납
- ▶ 신청 미달, 참가기업 포기 등 사유발생 시, 후순위 예비기업 우선지원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 신청·문의

- ▶ 신청 기간: 2025.02.19.(수) ~ 28.(화)
-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경상남도 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
- ▶ 제출 서류: [\[공지사항\]](#)에서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 ▶ 관련 문의: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289-9411)

글로벌 경제지표 ['25.2.25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12말	2/21	2/24	2/25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472.50	1,434.30	1,427.40	1,430.40	0.21	△2.86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473.80	1,432.20	1,425.00	1,431.86	0.48	△2.85
₩/CNY	181.44	181.37	202.38	197.81	197.90	197.14	△0.38	△2.59
₩/¥100	945.56	912.25	932.67	953.09	955.29	955.13	△0.02	2.41
¥/U\$	133.73	141.19	157.88	150.49	149.42	149.76	0.23	△5.14
U\$/EUR€	1.0617	1.1105	1.0429	1.0490	1.0510	1.0476	△0.32	0.45
CNY/U\$	6.9630	7.1092	7.2992	7.2494	7.2428	7.2597	0.23	△0.54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50.6원, (₩/¥100) 938.8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2/24	2/25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77.02	77.81	0.8	7.5	1.9
					1.0%	10.7%	2.5%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9.10	106.85	△2.3	17.5	6.8
					△2.1%	19.6%	6.8%
비철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490.00	△27.0	1377.5	757.0
					△0.3%	17.0%	8.7%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673.00	△4.0	559.0	152.5
					△0.1%	26.5%	6.1%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335.00	△185.0	185.0	50.0
					△1.2%	1.2%	0.3%

반도체

구 분	'22년말	'23년말	'24.11말	'24.12말	'25.1말	2/20	2/21	2/24	2월(~2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1.74	1.84	1.75	1.74	1.72	1.72	1.72	1.73
(%, YoY)	△23.0%	△14.8%	10.8	0.5	△6.3	△12.0	△12.1	△12.4	△11.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7.25	6.38	6.68	6.63	6.63	6.62	6.62	6.62	6.62
(%, YoY)	10.7	△2.3	4.0	3.9	3.8	3.1	3.1	3.1	3.2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2/7	2/14	2/21	전주비(2/14)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896.65	1758.82	1595.08	△9.3%	△35.2%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2/20	2/21	2/24	2/25	전주비(2/24)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941	981	1002	1039	3.7%	4.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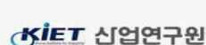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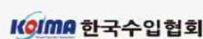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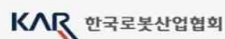
주관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